

## 태극낭자들 “안방서 시즌 11승 축배 들자”

### LPGA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 27일 개막

### 소렌스탐·오초아·카리 웹 등 빅스타들 빠져

### 김미현·신지애·문현희·송보배 등 정상 도전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의 주류로 등장한 '코리아 파워'가 안방에서 시즌 11번째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LPGA 투어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열리는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이 27일부터 사흘 간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린다.

2002년 창설돼 제주도 나인브릿지골프장에서 네 차례 열렸던 CJ나인브릿지클래식 대회 명칭과 개최지를 바꿨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무려 39명. 전체 출전 선수 69명의 절반을 넘는 다.

LPGA 투어 멤버만 22명이고 나머지 17

명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급 순위 상위 선수로 채워졌다.

더구나 한국 선수를 빼면 LPGA 투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강호가 거의 없어 안방에서 한국인 시즌 11승과 최근 태국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 그리고 이 대회 5회 연속 한국인 챔피언 탄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대회는 LPGA 투어 선수라도 상급랭킹 50위 이내에 들어야 나올 수 있는 '인비테이션얼 토너먼트'이다.

그러나 50위 이내 선수 가운데 출전을 포기한 선수가 많아 상급랭킹 72위까지 출전권이 돌아갔다.

대회 출전 자격이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상급랭킹이 가장 높은 출전자는 5위 김미현(29·KTF)이다.

1위~4위에 나란히 포진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 크리스티 커(미국) 등 '빅스타'들이 모두 빠져들었다.

그러나 LPGA 투어를 호령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거의 빠짐없이 출전한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골프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급 3억원을 돌파하는 '슈퍼투키' 신지애(18·하이마트)와 박희영(19·이수건설), 최나연(19·SK텔레콤), 문현희(23·휠라코리아), 송보배(20·슈퍼리어) 등 한국 여자프로골프 간판 선수들도 출사표를 냈다.

화려한 한국 선수들의 면면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거나 미국 여자 골프의 '희망' 플라 크리머, 브리티시여자오픈 챔피언 셰리 스테인하워(미국), 이신화와 신인왕을 다했던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 장타자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등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최경주 시즌 막판 '두마리 토끼사냥'

## “크라이슬러 타고 투어챔피언십 가자”

###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우승해야

### 올 시즌 상급랭킹 30위권 들어

### PGA투어챔피언십 출전권 획득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사진)가 두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26일(한국시간) 밤부터 4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 웨스턴이니스브룩골프장(파71·7천23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이슬러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최경주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어느덧 시즌 막판을 맞은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 2006년 시즌을 그대로 접어야 한다.

투어챔피언십이 남아 있지만 크라이슬러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놓친다면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PGA 투어 시즌 최종전 투어챔피언십 출전 자격이 바로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종료 상급랭킹 30위 이내 선수에게만 주어진다.

투어챔피언십은 2~3년간 성적이 토대가 되는 세계랭킹이나 우승 회수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 최고의 성적을 올린 선수만



초청해 치르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PGA 투어 올스타전'으로 불린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최후의 30인'에 컷된 최경주는 작년에는 1승을 올리고도 상급랭킹 30위 이내에 진입하지 못해 투어챔피언십 출전이 불발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 절박하다. 상급랭킹 68위(131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가 투어챔피언십 출전권 확보 안정권인 200만달러를 넘기려면 우승 밖에 없다.

우승 상급 95만4천달러를 받으면 투어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지만 준우승 상급 57만2천400달러로는 30위 이내로 순위를 끌어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쉽지만은 않은 목표지만 우승컵과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대회가 최경주에게 생애 두 번째 우승컵을 안겨줬던 익숙한 코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최경주는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최경주와 마찬가지로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노리고 이 대회에 나서는 강호들이 적지 않아 부담스럽다.

24일 현재 상급랭킹 30위에 턱걸이한 어니 엘스(남아공)와 31위 빌 클라크(남아공), 32위 마이클 웨어(캐나다)를 비롯해 30~40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지애의 꿈 '신데렐라'

시즌평균 타수 60대의 경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슈퍼투키' 신지애(합평 골프고 3년)는 이번주 열리는 미 LPGA대회에서 우승해 미국 무대에 직행할 수 있는 '신데렐라'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말년병장' 정경호·남궁도 앞세워 탈꼴찌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안방에서 꼴찌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25일 오후 7시 30분 홈 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후기리그 4위(통합순위 5위) 인천을 불러들여 2006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후기 11라운드를 치른다.

현재 14위에 랭크된 광주는 인천과의 역대전적에서 4승 2무 2패,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앞서고 있는만큼 '탈꼴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말년병장' 정경호와 남궁도를 투톱으로 최전방에 세우고 주장 김용희를 중심으로 전광진, 김영근이 허리인 미드필드를 책임진다.

### 오늘 4위 인천과 홈 경기

### 전남, 광양서 제주와 대결

하지만 광주는 주전 수비수 박용호와 미드필더 박요셉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게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에맞선 인천은 지난 경기에서 정규리그 첫 득점포를 결승골로 장식한 라돈치치를 주축으로 드러간, 김치우 등이 미드필더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다.

특히 라돈치치는 인천이 광주전서 얻은 8득점 중 5골을 넣은 '광주킬러'로 경계대상 1호다.

전남대리곤즈도 이날 오후 7시 광양전

을구장에서 제주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22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전남(9위)은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드시 승점 3점을 추가한다는 각오다.

이밖에 FC서울은 삼왕월드컵경기장에서 전기 우승팀인 성남 일화와 일전을, 선두를 질주하며 후기 우승을 눈앞에 둔 수원 FC와 홈경기를 벌인다.

대구 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포항과 홈경기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좌절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은 대전 시티즌과 맞붙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리그 내년부터 단일리그로 운영

### PO 진출 4개 → 6개팀

###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의결

프로축구 K-리그가 내년에는 단일리그로 치러지고 6강 플레이오프 우승팀을 가리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오후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K-리그 운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치러지던 정규리그를 단일리그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전·후기 통합순위 4강 팀이 진출하는 플레이오프는 6강 팀이 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존재 논란이 일었던 컵대회는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규리그 일정 및 플레이오프 진행 방식은 연맹이 진행 중인 '프로축구 중·장기 발전계획'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컵대회 진행 및 우승팀 선정 방식의 경우 연맹에 위임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실업축구 N-리그 우승팀이 K-리그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입금 10억원에 발전기금 10억원까지 총 20억원을 내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N-리그 우승팀이 20억원을 낼 여유가 없을 때는 승격이 무산되도록 했다.

또 드래프트제의 근간이 되는 18세 이하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정상화 하기 위해 K-리그 소속 클럽들은 의무적으로 연고 지역 내의 고등학교를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마드리드 '벤치 신세' 베컴 "맨유 시절이 그림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프리카의 마술사' 데이비드 베컴(31)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시절에 대한 향수를 내비쳤다.

베컴은 24일 영국 대중지 '더 선'과 인터뷰에서 "맨유가 그림다. 맨체스터에서 지냈던 15년간 매 경기 이기거나 질 때도 동료들과 히로애락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1993년 맨유에 입단한 베컴은 2003년 6월 맨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불화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옮겼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무난히 정착했던 베컴은 지난 여름 독일월드컵 이후 팀의 새 사령탑으로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취임하면서 벤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